

화장품

K-뷰티 관세 부담, 유통 구조 따라 명암

미국향 수출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현지 법인을 보유하고 직수출 구조를 운영하는 브랜드사, B2B 유통 대행사를 통한 간접 수출 브랜드사, 그리고 국내 화장품 ODM 기업 등 세 가지 유형별로 이번 관세 인상에 따른 영향과 전망을 구분해 살펴보고자 한다.

직수출 구조를 운영하는 일부 브랜드사

일부 K-뷰티 업체는 직수출 구조를 바탕으로 인보이스(수출신고)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관세를 대응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출 단가는 하락하지만 물량은 유지되어, 통계상 수출금액만 감소하는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품 원가가 10달러인 경우 인보이스 가격을 8.5달러로 낮추면, 미국 법인은 여기에 15%의 관세(1.275달러)를 납부하게 되어 총 매입원가는 9.775달러가 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 본사의 수익은 줄지만, 미국 법인은 낮아진 매입단가로 수익성이 개선된다. 특히 자체 유통망을 보유한 경우 소비자 판매가는 유지되므로 마진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결국 한국과 미국 법인의 손익을 연결 기준으로 보면, 인보이스 가격 인하로 인한 손실은 없으며, 관세 최적화를 통해 전체 수익성이 오히려 개선될 수 있다.

B2B 유통 대행사를 통한 간접 수출 브랜드사

현재 다수의 B2B 업체들은 미국 현지 물류창고에 일정 수준의 재고를 확보해두고 있어,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관세 인상이 즉각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보다는 일정 기간 완충 작용을 할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재고를 활용한 출고가 이어지면서 가격 안정세가 유지될 수 있으나, 하반기 중순 이후 재고가 점차 소진됨에 따라 관세 인상분이 납품가에 반영되고, 이를 계기로 브랜드별로 소비자 가격 조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유통 구조상 마진 여력이 크지 않은 브랜드일수록 가격 인상 압력이 더욱 빠르게 가시화될 수 있어, 하반기 실적과 수요 탄력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국내 화장품 ODM 기업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따라 한국 화장품 ODM 업체들도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 일부 고객사들은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미국 현지 생산으로의 전환을 검토해왔으나, 실제 이관이 성사된 사례는 드물다. 가장 큰 제약 요인은 생산 단가다.

한국 법인은 여전히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건비 차이에 더해 높은 생산성, 자체 조달(SCM) 효율 등 다양한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한편, 최근 관세 부과 품목에 화장품 용기류가 포함되면서 일부 주요 용기 업체의 수출 품목에도 관세가 적용되어, 대응 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승은 화장품/유통
seungeun.lee@yuantakorea.com

김도엽 Research Assistant
doyub.kim@yuanta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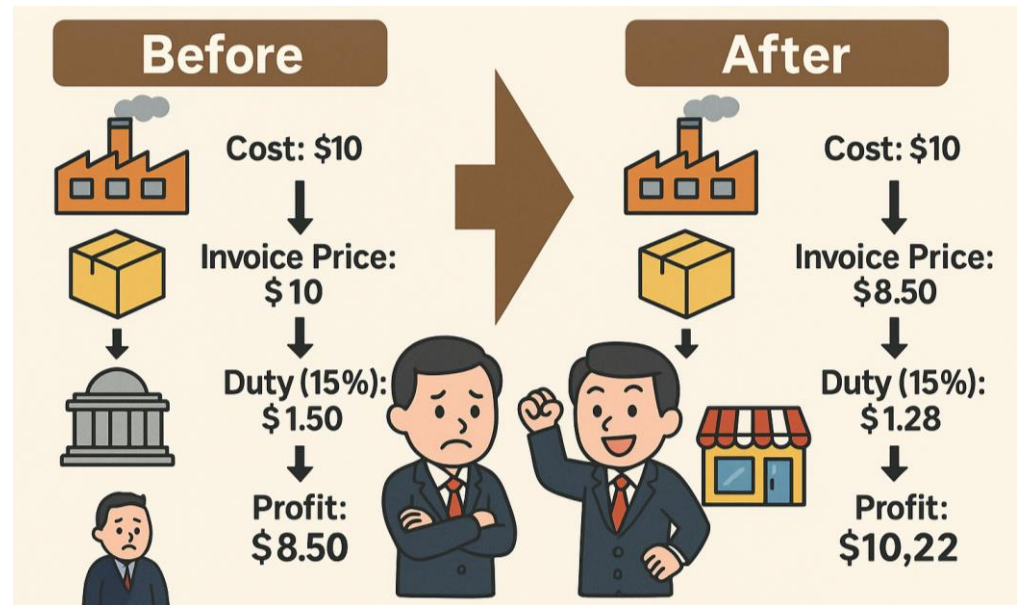
종목	투자 의견	목표주가 (원)

인보이스 가격 조정 전 vs 후 수익 구조 비교

항목	조정 전 (인보이스 \$10)	조정 후 (인보이스 \$8.5)
한국 본사 수출가	\$10.00	\$8.50
미국 관세 (15%)	\$1.50	\$1.275
미국 법인 총 매입원가	\$11.50 (=10+1.5)	\$9.775 (=8.5+1.275)
미국 소비자가격	\$15.00	\$15.00
미국 법인 마진	\$3.50 (=15-11.5)	\$5.225 (=15-9.775)
한국 본사 이익	\$0.00 (원가 \$10과 같음)	-\$1.50 (원가 \$10인데 \$8.5에 판매)
그룹 전체 이익	\$3.50	\$3.725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인보이스 가격 조정 전후 수익 구조 비교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ppendix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승은)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Strong Buy, Buy, Hold, Sell)로 구분한다
- Strong Buy: +30%이상 Buy: 15%이상, Hold: -15% 미만 ~ +15% 미만, Sell: -15%이하로 구분
-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 2014년 2월21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 2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